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광장	00 튠트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20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화화불간자전거 55 튠트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네트워킹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연애의 발견>(재)	00 MBC 여성토론 위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이벤트	00 SBS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 30 뉴스 특급	0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10 MBC 네트워킹특선 <심은 살아있다 3부>	30 애니왕국
2 40 직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다큐+강성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항이 보인다
3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일어버린 숲(재) 25 추로령 동물탐정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뉴스 10 키즈CSI 과학수사대 40 헬로키즈 아하 과학탐험대	10 일일연속극 <달라졌어요(재)>
4 55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튠트 생활 체조(재)	25 꾸러기 캐라톱스 코리아 55 밥상의 신(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매일염마 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로 세계 40 세상은 넓다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갈 때까지 가보자	00 KBS 뉴스7 30 우리들의 거꾸리	50 일일드라마 <뽀꾸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스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백일설의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설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55 긴급출동 24시	00 월화 드라마 <연애의 발견>	00 월화 드라마 <아정꾼 일지>	00 월화드라마 <유혹>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30 KBS 뉴스타임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더 라인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20 부부극장 골짜기(재)	30 TV 책을 보다(재) ①:10 T타임 40 알약톡톡	30 스포츠 하이라이프 45 해외결정드라마 <오면 블랙2-희망의 빛> ①:35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35 스포츠 다이아리 50 스포츠 특선 야구 원어는 남자 ①:50 바비킴-이루마의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 골프

“이미지 변신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

전정명, OCN ‘리셋’ 서 읊음한 카리스마 발산



동그란 얼굴에 순한 눈망울을 가진 배우 전정명(34·사진)은 소년과 청년 사이의 어디쯤 머물러 있는 인상을 준다. 마지막으로 브라운관에 등장했던 KBS 2TV ‘영광의 재인’(2011) 속 가난하지만 순수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김영광도 그러했다. 이 때문에 3년 만의 브라운관 복귀작인 OCN 드라마 ‘리셋’에서 진지하고 읊음하면서, 차가운 카리스마 아래 아픈 상처를 숨겨둔 검사 역할로 돌아온 전정명의 모습은 꽤 낯설다. 24일 밤 첫방송된 10부작 일일드라마 남자주인공 전정명은 “차우진 검사는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과는 전혀 다른 배역이어서 최대한 몰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우진은 설명할 것이 많은 캐릭터다. 그의 특기는 불편을 이용한 최면술로 상대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다. 최면술을 이용해 유독 강력범죄 사건에만 몰두하는 차우진의 마음 한구석을 찌는 첫사랑 승희를 찾아간 ‘X’를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는 강박이 깔려 있다. 차우진은 어느날 승희를 빼앗은 여고생 조은비(김소현 분)가 살인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일을 시작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과 맞닥뜨린다. 그는 스스로 밟았던 끔찍한 옛 기억을 서서히 되살리기 시작한다. 연기자로 데뷔한 지 10년을 넘긴 전정명도 스타일러라는 장르물에서 복잡다단한 면모를 가진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전정명은 “처음 ‘리셋’ 대본을 볼 때부터 정말 새로웠다. 쉬는 동안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리셋’은 한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점에 끌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면서 연기자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수사와 스타일러라는 장르를 통해 또다른 전정명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변화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찬 배우는 ‘리셋’ 출연 이야기

가 오고간 작년 여름부터 ‘설록’ 등 외국 드라마나 영화들을 찾아보고 연기수업을 받는 등 오랜 시간 공들여 작품을 준비했다고 했다. “전작들은 압박감이 있었어요. 이번 작품에는 저도 욕심이 나서 연기수업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그런 도움을 받다보니 뭔가 좀 든든했어요.” 그는 차우진의 특기인 최면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여줄지 고민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최면 영상을 구성했다. 전정명은 그러나 이번 드라마에서는 다른 작품들에서 종종 선보인 화려한 액션 연기는 접어들 예정이다. 그는 “직업이 검사인데 너무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캐리커처를 이해하는 데 방해받을 것 같다”면서 “김평중 PD도 액션은 최대한 캐릭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전정명과 상대인 김소현과의 나이 차는 무려 19살이다. “김소현이 조은비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상이 안 갔어요. 남녀 주인공이 19살 차이가 나는데 과연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막상 호흡을 맞춰보니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김소현은 워낙 스피디 같아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본인 생각도 잘 전해줘요.” 전정명은 두 주인공의 관계에 대해 영화 ‘레옹’에 등장하는 레옹과 마틸다 느낌이라면서 “레옹”을 다시 보고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전정명은 실제 본인 인생을 ‘리셋’한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느냐는 물음에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김소현은 초등학교 때부터 연기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면서 “저는 대학 체육교육과에 대한 목표만 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제 ‘필’에 어울리게 표현했어요”

내달3일 솔로곡 ‘살리고 달리고’ 발표

“이번 노래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넣었어요. 음악도, 안무도 저의 ‘필’에 가장 어울리는 것들이죠. 최고를 보여드리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허허실실’ 미소로 시청자의 마음을 울린 가수 겸 배우 김종민(35·사진)의 표정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진지한 각오가 엿보였다. “지금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도전의 시기”라는 그의 이야기에 15년차 가수의 노련미와 절실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내달 3일 신곡 ‘살리고 달리고’를 발표하는 김종민을 최근 서울 종로에서 만났다. 그는 노래에 대해 “핵심 포인트는 ‘웃음’이 아닌 ‘재미’”라고 강조했다. 마냥 크게 터지는 웃음이 아니라 잘 직조된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다. ‘살리고 달리고’는 데뷔 10여 년만의 첫 솔로 싱글이었던 ‘오빠 힘내요’(2011)와 2012년 ‘두근두근’에 이은 그의 세 번째 솔로곡이다. 2000년 그룹 코요태 멤버로 합류해 어느새 15년차 가수다. 노래 가사처럼 다시 돌아가고픈 그의 ‘좋은 시절’이 언제였나 물으니 뜻밖에 데뷔 이전인 스무살 무렵이라 한다. 당시 가장 ‘힘들’던 친구도 이성에게 인기도 많았던 시절이라는 것.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세월을 ‘칭찬’하고 싶다고 했다. “크게 특별한 것 없이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잘 해왔다고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변화가 있다면 20대는 젊으니까 그 젊음의 에너지로 버틴 것 같아요. 지금은 힘으로만 버티기 힘들죠. 전략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웃음)”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 잘못했던 것들은 반복하지 않고, 잘했던 것들은 귀감으로 삼아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어느새 ‘중견’ 가수가 된 그에게 이번 앨범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도전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 그는 “30대 이상 분들은 내 가수로서의 절정기를 봤지만 지금 10~20대 친구들은 나를 방송인으로서만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음악 활동을 통해 김종민이 가수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활동으로 음악쪽이든, 예능쪽이든 새로운 활동의 길이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여만의 솔로 앨범 발표다.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 “솔직히 음원 차트 성적은 크게 바라는 부분이 없어요. 순위는 많은 팬들이 몰려 들어주시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커서요. 그보다 꾸준히 활동하면서 음악을 알리고 싶어요. 대신 대학교 행사나 축제에서 가장 섭외하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웃음)” /연합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2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4:45 EDIF 2014	19: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05:40 나의 성공비결 <기성중학의 국가대표, 서민 교수>	09:35 배꼽 <가족을 위한 식단 <봉어빵 부자, 입맛을 잡아라!>	16:00 당동명 유지원(재)	20:40 다큐 오늘 <울릉도에서 이순신을 추억하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10 EBS 특강 <대화에 기술이 필요하다>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양	20:50 세계테마기행 <야생의 대지 알래스카 1부 - 한여름의 반바탕람>
07:00 놀이터 구조대, 보양(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곰피와 친구들(재)	21:30 미라보는 EIDF 2014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1:20 세계테마기행 <중국 네이멍구>(재)	17:00 방귀대장 뽀뽀(재)	21:50 EIDF 2014 개막식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
0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3:10 EIDF 2014 <마르마로>
07:45 뽀뽀뽀 뽀로로(재)	12:10 EDIF 2014	17:30 뽀뽀뽀 뽀로로	24:45 EIDF 2014 <112번의 결혼식>
08:00 당동명 유지원	13:45 EDIF 2014 <새식주의자의 고기 굽는 법>	17:45 바이오밤섬의 파오파오	26:25 EIDF 2014 <애 나는 수확이 싫어졌을까?>
08:20 두디다(재)	19:30 EBS 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건강식객!부-일본 채소 유람>	
08:35 방귀대장 뽀뽀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나	
08:50 곰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9:05 바이오밤섬의 파오파오(재)			

EBS플러스1

00:00 알짜 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를 기술분석>	12:15 수능완성 <수학 I A형>
01:40 수능특강 light <영어 독해>	13:05 " <수학 II>
02:30 " <영어 듣기>	14:00 " <국어 A형>
03:20 뉴 텀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4:10 " <사상>	15:40 " <동아시아사>
05:00 " <한국사(상)>	16:30 "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7:20 " <세계지리>
06:40 압축텀스런 <물리 I>	18:10 "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08: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재)	20:00 EBS-N제 <국어 A형>(재)
09:10 " <영어듣기>(재)	21:00 " <수학 A형>(재)
10:00 뉴 텀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민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50 " <국어4-2>
07:30 나의 성공비결 불교문화	16:20 " <국어5-2>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50 " <국어6-2>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2>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50 스콜랜드(재) <문학 3>
09:50 " <수학 I(상)>	18:00 TV 중학 <비문학 3>
10:30 " <역사 I>	18:40 " <국어③④>
11:10 " <수학 2(상)>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국어>
11:50 " <수학 2(상)>	20:00 중학개념 풀이책 <영어>
12:30 통합인공 <수학 2(상)>	20:40 " <과학>
13:10 " <과학 2(상)>	21:20 " <수학3-2>
13:50 " <수학 2(상)>	22:00 통합인공 <수학3-2>
14:30 " <수학 2(상)>	22:4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15:10 스콜랜드	23:20 중학6포스 영문법 1
15:20 만점왕 <국어3-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5일(음 8월 1일 戊辰)

子	36년생 중요한 기회들이 잘 활용에 보아라. 48년생 용이한 결과 도출 될 수 있겠다. 60년생 사람들과의 만남이 유익하다. 72년생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다. 84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맞이해라. 행운의 숫자 : 75, 53	午	42년생 망설이다가 놓치지 않도록 하라. 54년생 준비 한다면 능히 위업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66년생 운세까지 말고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전달해야 하느니라. 78년생 정성을 보이면 된다. 행운의 숫자 : 05, 56
丑	37년생 서로 간에 신뢰로써 임해야 하느니라. 49년생 정해진 일이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1년생 중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리라. 73년생 기회 남득이 겠 것이다. 85년생 목격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1, 01	未	43년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쾌하게 정리 될 것이다. 55년생 치밀한 구성을 해야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 67년생 정확하게 실행해야 기복과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 79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 행운의 숫자 : 70, 83
寅	38년생 최선을 다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느니라. 50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62년생 배우에서 드러나지 않은 체 영향력이 행사 되고 있다. 74년생 다른 국면으로 전환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2, 22	申	44년생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 이니라. 56년생 즐겨 쓰는 방법대로 이행해야 실수하지 않느니라. 68년생 양쪽의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해지겠다. 80년생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해결 된다. 행운의 숫자 : 07, 28
卯	39년생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헛수고일 뿐이다. 51년생 실제로 제 구실을 충실히 해야만 하느니라. 63년생 간단한 문제이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75년생 약간 변할 수도 있으나 대동소이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0, 12	酉	45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하다. 57년생 표출하지 말고 흡입해야 할 시기이니라. 69년생 이제는 결단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81년생 우직할 정도로 진득한 덕성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88, 92
辰	40년생 기회를 만나면 즉시 잡아안 취할 수 있는 법이다. 52년생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의 교류가 있을 것이다. 64년생 목격의 식이 분명 해야만 한다. 76년생 모든 재원은 무리함에서 비롯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8, 41	戌	46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판단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 58년생 판국은 절대로 바뀌지 않느니라. 70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82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3, 93
巳	41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53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65년생 관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 77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60, 69	亥	47년생 전반적인 짜임새를 이해해야 합리적인 안목이 생긴다. 59년생 확신을 갖고 한 방 날려야 할 시기이니라. 71년생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이가 보인다. 83년생 낙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행운의 숫자 : 37, 4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선영” ☎010-9790-8237